

## 중기청,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33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3300억원을 각 시도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에게 지원될 자금 규모는 정부지원액 3300억원을 포함해 시도 자체 조성액 1849억원, 지난해 말 보유자금 1조 4273억원 등 모두 1조 9422억원이다.

이번 자금지원은 시도의 지방비 조성규모와 지방재정력 지수, 자금 활용 실적,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각 시도별로 배정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제조업 전입율 30%이상),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유통업 등이며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이번 육성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소재지 관할 해당 시도에 자금신청서, 공장등록증 사본, 결산 제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과기부, 올해 연구성과확산사업에 80억5000만원 지원

과학기술부(장관 박호근)는 올해 공공연구기관 보유 우수 연구성과의 민간이전과 상용화·특허출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성과확산 사업에 8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은 특허경비지원사업(35억원), 기술이전컨소시엄지원사업(18억원), 이전기술연구개발지원(21억 5000만원), 연구원창업지원사업(6억원)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대학산업기술지원단(<http://www.unitef.com>)과 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늘린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기관을 종전 79개에서 97개로 늘림에 따라 문화관광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하철공사 등 20개 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게 된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는 민영화로 이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들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 조치 일환으로 구매관리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중소기업구매지원관을 지정하고 관련업무와 민원을 전담하게 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기관의 확대에 따라 금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전년대비 1조 5000억원이 증가한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청, 올 해외인증 획득 희망 업체 15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안에 해외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3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총 1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이 지원하는 이 자금은 전문컨설팅기관을 통해 해외인증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의 50% 또는 업체당 7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자금은 3차로 나누어 지원되며 1차 자금은 지난 29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1500개 기업에 대해 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2차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며 3차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 벤처기업 수출기여도 높아

중소기업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보다 5.7% 증가한 68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1999년 이후 4년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벤처기업 수출은 7.3% 증가한 59억달러를 기록해 벤처기업의 수출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의 주요특징은 1월부터 3월까지의 계속 감소했지만 4월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균 12%이상의 상승세를 실현했다. 특히 품목별로는 무선통신(73.3%), 컴퓨터(70.8%), 영상기기(26.6%) 등 IT산업분야가 급속히 성장했으며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했다.

### IT, BT, NT 분야 공개 감사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IT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공개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첨단기술 관련 학계, 연구기관, 협회·단체, 업계 등 일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일반 국민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및 공개감사의 방식으로 내달부터 총 4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IT 등 첨단기술산업 관련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법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IT분야를 비롯해 생명기술(BT)과 나노기술(NT) 등 첨단산업 관련 정부시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첨단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BT〉美 식품수출 까다로워진다

미국이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법률을 제정, 올해 말부터 세부규정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국내 업체의 대미 식품수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백신 비축, 식품검사 개선 등을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일 이 법률안 중 식품 관련 세부안을 확정,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 세부안은 대미 식품 수출업체가 올해 12월 12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조시설 주소, 생산품목, 미국내 수입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체가 수출하는 식품을 미국의 통관 항구에 억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12월 12일부터 미국 내 수입자는 수입식품 도착 1~5일 전에 제조자, 원산지 등을 FDA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다.

### 〈ET〉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연간 1천억원

환경신기술이 사업현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신기술 지정제도는 환경관리공단이 우수기술을 환경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수질, 대기,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총 58개 기술이 인증받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받은 58건의 신기술 가운데 26건(39%)이 사업현장에 적용됐으며 지난 1999년부터 재작년까지 3년간 총 3269억원의 매출실적이 나타났다. 연 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환경신기술 수주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환경벤처 펀드 지원, 신기술 발표회 등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신기술이 전국 각지의 소각시설과 하수, 폐수 처리장 등에 보급돼 활용되고 있다”면서 “환경신기술 사용을 한층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신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검증받는데 드는 비용(4300만원)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KAIST, 세계 첫 시스템온칩플랫폼 개발

칩 하나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온칩(SoC) 플랫폼’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SIPAC·센터장 유희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고체물리학회(ISSCC)에서 SoC디자인을 위한 800MHz 스타구조의 온칩 네트워크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온칩 네트워크는 하나의 칩 안에 인터넷이나 랜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조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 개발로 고화질(HD)TV와 같이 리얼타임 트래픽이 많고 대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을 원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칩 안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실제 구현한 사례는 SIPAC 연구팀이 처음이다.